미군의 세계전략과 아시아 태평양

2006.11.25 우메바야시 히로미치(평화자료협동조합)

● 2 개의 동기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의 미군 태세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미국방총성, ＤＯＤ)라고 불리울 정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는, 직접적으로는 ＤＯＤ가 「세계적 국방 태세의 재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ＧＰＲ)라고 명명한 것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것은 ０１년９월말, 부시 정권에 의해서 작성된 「４년을 주기로 하는 국방정책 재검토」(０１ ＱＤＲ) 에서 밝혀졌다.

이 세계적 재편에는 두 개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하나는 장기적인 「미군 변환」(US Forces Transformation)의 흐름이다.「미군 변환」은 ９７년의 클린턴 정권이 작성한 ９７ ＱＤＲ에서 시작하는 미국방총성의 수１０년을 걸쳐 진행하는 대책이다. 다른 하나는, 부시 정권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보다 단기적인 필요성이다. 이라크에 수십 만명, 아프가니스탄에 1 만 수천인의 병력을 예상이 불가능한 장기간의 전개에 즈음하여, 병력의 배치에 곤란이 생겼다. 냉전시대에 기원을 가지는 현재의 세계적인 배치 태세의 문제점이 노출된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전쟁은 미군의 ２１ 세기형 전쟁의 실험장이다.ＧＰＲ은, 이러한 전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부대나 기지를 재편하는 현실적 요구로도 되어 있다.

첫번째의 장기적인 「미군 변환」이란, 테러, 게릴라, 미사일, 대량 파괴 무기, 사이버 공격, 우주 전쟁 등 ２１ 세기형의 위협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이다. 여기에서는 미국이 자부하는 하이테크 정보기술(ＩＴ)의 압도적 우위를 토대로 하는「군사적 혁명」(RMA)을 목표로 한다. 이 혁명은, 단지 장비·기술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전쟁의 본연의 자세, 군조직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는 데에 있다. 군대는,「보다 기민하고 보다 유연한 군대」(부시 대통령)로 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현상의 하나는, 「통합(조인트)의 추진」이다.「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라고 하는 군별로 구축해온 부대나 작전의 본연의 자세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의 군별주의는 대부대주의, 물량주의의 정규전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다양화 되어가는 불규칙 전쟁에 대해서는,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순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ＩＴ을 살려, 각 군의 특색을 유연하게 발휘할 수 있는 「통합군」이 기본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발상에 의해, 미군의 통합각료회의는 「조인트·비전 ２０１０」 (９６년７월), 「조인트·비전２０２０」(２０００년５월)을 책정했다. 그리고, 국방총성은 「미태평양군」과 동등한 지역군조직인 「미대서양군」을 ９９년에 폐지하고, 「통합부대군(조인트·포시즈·커멘드)」을 형성했다. ０２년에 「통합부 대군」은 순수하게 통합화의 추진만을 임무로 하는 부대로 탈바꿈했다.

두번째의 대테러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선 ０４년８월 １６일의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주목하고 싶다. 그는 미군 재편의 결과 「향후도 상당양의 해외 배치를 계속할 것이다. 오늘 발표할 계획에 의해, 지금부터 １０년에 걸쳐 약６-７만명의 정규 군인, 약１０ 만명의 가족 및 민간 종업원이 본국에 돌려 보내지게 될 것이다....군인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보다 예측 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어, 보다 배치 전환이 적게 되는 것이다. 군인 배우자들은 일을 바꿀 필요가 적게 되어, 보다 큰 안정을 얻고, 보다 많은 시간을 아이나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원병 제도속에서, 대테러 전쟁에서 병력 공급이 곤란하게 된 결과의 선택이다.미국본토에 많은 부대를 귀환시켜, 독일, 한국, 오키나와 등의 배치장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전환 시키는 것으로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방 전략(０５년３월)은, 이러한 미군 태세의 전환이 진행형의 전쟁을 지원함과 동시에, 미군 부대나 기지를 방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반영 되지 않을 수 없다.

●동맹국의 말려들기와 「연꽃의 잎」전략

미군은 ＧＰＲ에 해당되는 ５개의 목표를 내걸었다(ＤＯＤ 「합중국의 국방 전략」０５년３월).

１.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한다.

２.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유연성을 높인다.

３.배치되는 지역을 넘은 역할을 담당하는 부대를 목표로 한다.

4.신속히 전개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5.수가 아니라 능력을 중시한다.

즉, 전체적으로 미군은, 기지를 받아 들이고 있는 나라가 미군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고, 미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유연하고 기민하게 기지에서 전지로 군대를 전개할 수 있는 기지의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구축 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미군기지의 운동에 있어서 첫번째의 목표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미군 재편은 동맹국과 미국과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라는 「재편 이데올로기」가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이익 유도의 수법일 뿐만 아니라, 공갈의 널조각 수법이기도 하다. 미국이 바라는 세계 질서의 형성을 동맹국이나 우호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임하는 공통의 목표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들이는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그들 자신의 군대, 군사 독트린, 전략을 근대화 하는 것을 돕고」, 또한 「그들과 함께 군사 능력을 전환하는 방법을 탐구」한다(파이스 국방 차관, 당시)라고 하는 목적이다.

동맹국의 「주체성」(어디까지나 미국의 자기중심적인 의미이지만)을 끌어내려고 하는 목적중에서, 파이스 국방 차관은 「사고나 그 외의 지역 감정에 기인해 생기는 인수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 점에 관해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한층 더 구체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는 기지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회 증언을 하고있다.「부대는 요구되고 환영되며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우리

군의 존재나 활동이 현지 주민의 불쾌를 유발하고 인수국의 꺼리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좋은 예로, 한국의 수도 서울의 특등지에 우리 군의 거대한 사령부가 놓여져 있다.이것이 많은 한국인의 오랫동안의 분노를 사 왔다」.이러한 언동은 일구이언이 되어서는 안되며, 반기지 운동 중에서 활용 되여야 할 것이 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국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군은 해외 기지의 개념을 다음의 3종류로 정리했다.

이 발상은 자주 「연꽃의 잎」전략(릴리· 패드· 스트라테지)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다. 연못에 연꽃의 잎이 떠올라 있듯이 지구상의 다양한 장소에 미군 기지가 배치된다. 개구리가 연꽃의 잎을 뛰면서 이동하듯이 이러한 기지를 도약대로 하여 미국은 온 세상의 어디에라도 단기간에 군사를 보내, 거기서 지구력이 있는 전쟁을 실시할 수 있는 세계 태세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연꽃의 잎의 크기에 따라서 3종류의 기지를 상정했다.

◇주요 작전기지(MOB=메인· 오퍼레이션 레이팅· 베이스). 상주부대가 배치되고 , 잘 정비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영구 기지이다. 훈련, 안보 협력, 작전부대의 배치나 기지 종업원의 고용이 가능하다.

◇전진 작전지(FOS=포워드· 오퍼레이션 레이팅· 사이트). 보다 간소한 기지로서, 로테이션의 작전부대를 배치한다.필요에 따라서 확대사용을 할 수 있다. 자주 장비를 사전 집적하는 장소가 있어, 그것을 위한 소인원의 지원 부대가 상주한다.

◇안보협력지점(ＣＳＬ=코페라티브· 시큐러티· 로케이션). 한층 더 간소한 기지로서, 짧은 통보로 사용 가능한 일정한 군사활동을 지원한다. 불측 사태의 경우의 액세스, 병참지원, 로테이션 작전부대의 일시사용 등에 사용된다.일반적으로, 상주 인원은 제로이거나 소수이다.

ＤＯＤ는, 이와 같이 기지 기능에 대하여 신축성을 부여하여 대형의 「주요 작전 기지」의 수를 줄여, 기동성이 있는 기지 네트워크를 재구축 하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스트라이크, 미사일 방위와 한반도

아시아 태평양의 미군 태세의 변화를 볼 때, 미 전략의 새로운 세 기둥에 대해서도 말해 둘 필요가 있다. 세 기둥의 첫째는, 부시 정권의 선제 공격론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글로벌· 스트라이크(지구 규모의 장거리· 정밀 공격)를 중심으로 하고, 둘째는 미사일 방위를 중심으로 한다. 셋째는 이러한 능력을 위기에 신속히 대처해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쳐의 유지이다. ０３년１월에 나온 대통령 지령(비밀문서)에 의하면, 글로벌· 스트라이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것이며, 핵무기와 통상무기 양쪽 모두를 포함한 공격이다.

「전역이나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신속하고 장거리의 사정을 가지며, 정밀한 역학적 효과(핵 및 통상무기) 및 비역학적 효과(우주나 정보의 제요소)를 낳는 능력.」

글로벌· 스트라이크의 경우도, 미사일 방위의 경우도, 한반도 위기를 구실로서 급속히 실전 배치되고 있다.

글로벌·스트라이크를 임무로 하는 새 사령부 「우주 및 글로벌·스트라이크(ＳＧＳ) 통합기능부문사령부(ＪＦＣＣ)」는, 미전략군안에 ０５년１월에 설립되어 동８월９일에 임무를 개시해, 동１１월 １８일에 초기 작전 능력(ＩＯＣ)을 달성했다고 발표되었다.그 초기 작전 능력의 달성은, 「글로벌 번개」(０５년 １１월１일-- １０일)라고 하는 코드네임을 가진 연습에 의해서 글로벌·스트라이크의 ＩＯＣ을 달성했는데, 그 연습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수반하는 시나리오를 가진 연습이었다.

또, 부시 정권은, 기술적으로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０４년 １０월부터 미사일 방위의 초기 배치를 개시했는데, 그 중심은 대북의 미사일 방위였다. 제７함대의 이지스 함(모항 : 요코스카)에 의한 일본해 패트롤, 한국에의 패트리어트 배치가 실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 단번에 자국의 미사일 방위를 추진해 미국과의 공동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지의 움직임

ＧＰＲ의 결과, 유럽 １０ 만명, 아시아 태평양 １０ 만명, 합계 ２０ 만명이던 해외 배치의 미군(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제외)은, 합계 １３ 만명이 되었는데, 유럽５.５만명, 아시아 태평양７.５만명(괌을 포함)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비중이 지극히 커지려 하고 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육군의 대규모 삭감,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에서 처음으로 구동측 블럭에 상술의 ＦＯＳ인 미군 기지가 놓여지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의 주목해야 할 변화를 개관 하고저 한다.

일본에서는 3년간에 걸친 일·미협의의 결과, 3개의 중요문서에 합의했다. 외관상에서는, 헌법이나 일·미안보조약의 조문이나 해석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실제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일·미 동맹」이 변질되었다.평시부터 사령부 레벨의 일체화가 실행되도록, 캠프 자마(대테러 전쟁), 요코타(미사일 방위, 공동통합 작전)에 자위대와 미군이 동거를 한다.오키나와에서는 약간의 수적인 삭감을 빌미로 기지 영구화가 목표로 정해진다.

한국에서는, １２５００인의 삭감을 빌미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기본 합의(０６년１월 공동 성명)되고 주민을 탄압하여 평택에 대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노던·데리터리에 미-호주 통합합동훈련센터 설치가 합의되어 새로운 훈련 기지로서 강화됨과 동시에, 통신·정보기지로서 글로벌·스트라이크나 미사일 방위를 지원한다.해병대 훈련 기지의 건설도 계획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방문군협정(ＶＦＡ)」과 그것을 보충하는 ０２년의 상호병참지원 협정(ＭＬＳＡ)이 오늘의 미군 재편의 개념을 선취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대테러 전쟁의 전진기지인 ＦＯＳ로서 기능하고 있다.거기에, 미군의 지도에 의한 필리핀 국군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연꽃의 잎」전략 속에서, 미 시정하의 괌의 전략적 가치가 재검토되고 괌은 날이 갈수록 현저한 변모를 이루고 있다.글로벌·스트라이크의 전진 허브로서,

공중폭격기지로서 부활함과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기지, 해병대기지가 되려 하고 있다.오키나와 해병대의 ８０００인을 포함해 인원은 현재의 3배에 달하는 ２１０００인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싱가폴은 미국과 전략적 골조 합의에 서명하고(０５년７월), ＣＳＬ으로서의 임무를 강화·확대했다.그 현상의 하나는, 아시아에서 첫 ＰＳＩ(확산 방지 이니샤치브)의 합동·통합 연습을 실행한 것이다(０５년８월).

인도와 미국은 새로운 동맹 관계에 들어갔다. ０５년6 월에 대테러 전쟁에 있어서의 협력을 약속한 「방위 관계의 새로운 골조」문서에 각료 레벨로 서명했다. 미사일 방위, 우주 계획 등 광범위한 협력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인도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해, ＮＰＴ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하여 비판의 표적으로 되어 있는 미-인원자력 협정을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미-인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중앙 아시아에 대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카르자이 정권과「전략적 파트너십」에 서명하고(０５년5월), 버그 램 공군기지 등 군사거점의 자유사용의 권리를 획득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지사용은 거부되었다. 키르기즈와는 간신히 ＦＯＳ을 확보하는 협정에 조인할 수 있었다(０５년 １０월). 그러나, 중앙 아시아에 있어서는 샹하이 협력기구와 미국과의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ＧＰＲ에 의한 미군 재편은 많은 지역에서 강한 반대운동에 직면하고 있다. 이 국제 집회에서 주권,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반민중적 본질이 폭로되어 세계적인

연대와 공동의 투쟁이 태어나기를 기대한다.(끝)